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사람과 관능의 해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점점 더 살기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며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치는 위정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가르되 하늘의 해와 낮과 고고 두려워신 하나님  
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연  
막을 자키며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  
이다 이제 중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  
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느헤미야 1:5-6)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2호 2011년 12월 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기도로 국정 운영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크리스천포스트, 오바마 대통령 추수감사절 연설 논란 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큼이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대통령은 없다. 이를 중에 무슬림을 연상시키는 "후세인"이 미들 네임으로 있어, 미국인들은 "혹시 무슬림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4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한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생략되고, 단지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연설로, 보수나 복음주의 진영으로부터 웅단 폭격을 받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다시 말해서 3분만에 걸친 연설 내내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연설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전임 대통령들의 기도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국정을 운영해나간 대통령들의 이미지를 그리워하는 미국인들의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보도하고 있다 (Obama's God-less Thanksgiving Speech Draws Ire).



지난 추수감사절에 백악관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오바마 대통령(오른쪽)

오바마 대통령의 "하나님 생략" 추수감사절 연설이 미전역에서 원성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는 미국인들의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맞는 대통령은 모두가 하나님께 1년 동안 미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천명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히 모두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평가 절하시켰다.

3분 동안 행해진 연설 중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Obama said his family would spend the day "eating great food, watching a little football, and reflecting on how truly lucky we are."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리는 '추수감사절 선포(Thanksgiving Proclamation)'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09년, 2010년 추수감사절 연설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천명했다. 이 때문에 사사건건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해 온 일부 보수 세력들이 일부러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만든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서 왜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 "세상 어디서나 모든 열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며, 그분이 주시는 혜택들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로 들어가야 한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기쁘거나 슬픈 것들에 기도와 감사로 되새기는 말이 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전통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매일 삶 속에서 기도를 드렸다.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선포한 공식과 기도의 날 선언문과 추수감사절 선언문,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한 취임연설문 등을 통해 한마디로 기도로 미국을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카터 대통령의 기도 응답에 관한 글은 그 감동이 대단히 크다. 미국인들이 이란에 인질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서 늦게 응답하시어 그와 레이건의 대통령 이뤄임식 날 인질들이 풀려나게 된다. 응답이 대통령선거 1주일 전에 만 되었어도 그가 재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은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늦은 응답에 감사하며 오히려 퇴임 후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었다.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대통령들의 인상적인 기도와 어록을 미리 소개한다: (15면으로 계속)

##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사는 2012년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한국 금관교회에서 강사진을 모시고 갖는 이번 세미나에 많이 참석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사역과 신앙의 길을 함께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관교회, 숙소: 워커히 호텔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등록금**  
목사/선교사: **초기등록 150달러**  
(2011년 10월-2012년 2월 29일)  
(2012년 3월1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연기등록: **50불**

**연락처**  
NY-노선의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항공권/관광 문의** 유 여행사

참석대상

등록금

연락처

항공권/관광 문의



2면

특출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 없다.



3면

소그룹 활동의 모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교제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조일구 목사(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16면

인터뷰 SEED USA 대표 유익상선교사

#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

담임목사 위임



박규성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설립자이신 장영춘 목사님의 후임으로 2대 담임 박규성 목사님의 위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복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주후 2011년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퀸즈장로교회 본당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전화(718)886-4040 FAX(718)358-7789

담임 장영춘 목사 및 교우일동



홈페이지 www.kapcq.org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이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 시론

## 2011년의 정상에서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정상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던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우리는 드디어 정상에 올라와있습니다. 너무 높고 협착해서 험준하게만 보이던 산길을 험하게 12달을 씹 없이 성실하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힘에 겨워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함께 정상까지 왔습니다. 길 가에 있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기도 하고,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짐승 때문에 놀라 가슴을 졸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앞서는 사람들을 놓쳐서 길을 잃고 낙오자가 될까 속이 타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에서 기 위해 남몰래 흘린 눈물도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말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등산객 같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여유 있게 솔바람에 식히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온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래서 부대 끼고 살아갈 때 보지 못했던 주위환경과 먼 곳을 쉽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에서 서보니 길이 보이는 것을, 아래서는 구름에 가리고, 나무에 가리고, 사람에 치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상을 향한 등산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거나 어려워 더 높이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아래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상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destiny)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잠시 쉬어 가는 곳입니다. 지금의 정상은 더 높은 곳을 마주하고 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구체적인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더 높은 정상을 위해 또 하나의 베이스캠프(base camp)를 구축한 곳입니다.

우리는 잠시 휴면 땀을 닦고 일어나 앞에는 '2012'이라는 팻말의 입구를 통과해 산 정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고 험난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앞서 가십니다. 정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곳으로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곁에서는 성령님이 "저곳을 향해 어서 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쪽입니다, 어서 감시다" 라고 길을 안내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곁에는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 동반자들이 "인도자를 따라 어서 같이 감시다"라며 밀고 당겨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 힘든 진정으로 아름다운 행렬입니다.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함께 정상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해 함께 가십시오. 정상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배낭을 다시 점검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정상을 향해 가십시오. 주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정상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들려오는 메아리와 함께 정상에 서 있을 우리들을 생각하며 벌써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발걸음도 가볍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오늘 벗고 아름답게 펼쳐진 산 정상을 생각하십시오.

# 특출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리더 없다!

## 바나리서치, 미국인들 '존경하는 크리스천' 설문 결과 밝혀져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인물이 없다" 바나리서치는 최근 미전역에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없다고 최근 설문결과를 밝혔다(U.S. Lacks Notable Christian Leaders). 이번 설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로, 95%의 신뢰도와 +/- 3.2%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결출하거나 특별한 크리스천리더 부족은 바나리서치가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 한 사람만 말하라"고 물었을 때, 41%의 미국인들이 선택 누구라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계속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만이 그래도 두 자리 수치, 즉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19%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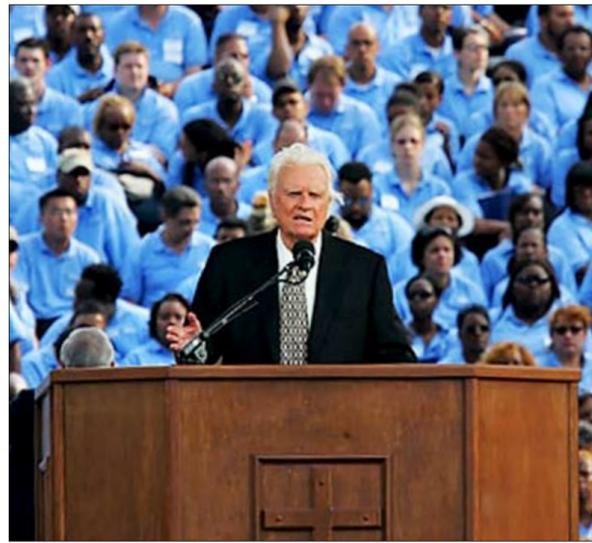
빌리 그레함 목사를 영향력 있는 리더로 꼽은 사람들은 그나마 복음주의자들로,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로 그레함 목사를 선정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한 자리 수치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로마교황청의 수장 베네딕토 교황이다(9%). 여기에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리더로 거의 같은 수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8%).

그리고 긍정적인 설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가 5%의 지지율로, 찰스 스탠리(Charles Stanley)나 조이스

균을 상회하는 선에서 빌리 그레함(35%), 조이스 마이어(12) 그리고 프랭크린 그레함(5%)을 현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선정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교황, 오바마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T. D. 제이크스 감독, 오프라 윈프리나 찰스 스탠리 등을 크리스천 리더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불가지론자이나 무신론자(65%) 그리고 비크리스천들(52%)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의 이름을 선택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야 매체나 주변으로부터 이들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응



미국내 존경할만한 크리스천으로 19%의 지지를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먼저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특정한 인물의 업적이나 삶의 모범, 메시지가 뚜렷하게 각인될 정도로 영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나야 한다. 결국 전국적인 규모로 사역을 하는 크리스천 리더의 출현보다는 자신의 사역지

## 지역에서 인정받아 영향력 확장하는 유형의 새 리더십 출현 리더 인정받은 크리스천들 모두 미디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

마이어(Joyce Meyer) 목사가 각각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정치가, 소설가 그리고 다른 대중적인 지지도를 받는 인물들 중에서 미전역에서 1% 정도 인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는 프랭클린 그레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T. D. 제이크스, 오프라 윈프리, 제임스 님스 등이 선정됐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빌리 그레함-19% 베네딕토 16세-9% 바락 오바마-8% 조엘 오스틴-5% 찰스 스탠리-2% 조이스 마이어-2% 다른 인물들-15% (1% 미만) 잘모르겠다-41%

설문 조사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된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평

답한다. ▷그러나 비크리스천들은 그나마 찰스 스탠리(7%), 조지 부시 전 대통령(4%), 오프라 윈프리(4%) 등을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리더로 인정한다.

▷개신교인들은 빌리 그레함을 가장 중요한 리더로 인정하고(31%), 가톨릭들은 교황을 선정한(32%).

▷66세 이상의 엘더스, 그리고 47-65세 사이의 부머세대(27%)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선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반면, 28-46세 사이의 버스터(12)와 18-27세의 모자익 세대(4%)에게 그레함 목사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바나리서치의 프로그램 디렉터 린 하네체(Lynn Hanacek)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대답하게 된다(top-of-mind awareness measures)"로 전제한다. 그런데 가장

따라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만큼이나 그 이상의 족적을 남긴 크리스천 리더가 아직까지는 없기에 선택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빌리 그레함 목사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미국사회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리더로 선정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린 디렉터는 해석한다. 그 이유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교체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젊은 크리스천들까지도 인정할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 크리스천 리더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는 유형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에서 리더로 인정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모두 미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미디어에 익숙한 리더들로 자신들의 사역에서 미디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어, 이를 미전역에 확대하려는 계획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 EM 사역자(part-time) 및 반주자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와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EM사역자)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 자격(반주자)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제출서류 - 이력서 (공통)  
- 목회소견서 (EM사역자)

접수마감일 - 총원시까지

###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다들 구독하  
고요.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소그룹 활동의 모델, 바울과 빌립보교인들의 교제!

## 리더십저널, D.A. 카슨 교수의 '복음이 최우선인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원리' 소개

"십자가가 삶의 중심에 있는가? 복음이 최우선인 삶을 살고 있는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와 복음이 삶의 중심이자 최우선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복음주의의 진영 최전방에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변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탁월한 신약학자 카슨(D.A. Carson)교수는 진정한 크리스천에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바로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설파한다.

운동선수가 기본기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서는 일정 수준을 넘어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해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초에

대해 되새겨야 하는가?

카슨 교수는 첫째, 신자들에게 인간관계, 기도생활, 직장생활, 개인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 최우선적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둘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증거, 믿음의 인내를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셋째, 긍휼함, 신실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과 관련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한 일곱 가지 덕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슨이 촉구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공동체에 연관시켜 복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소그룹의 청사진을 만들어 본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관련한 운동경기 이야기, 문학 서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던 훌륭한 식사 이야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소그룹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짧은 시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가지고 일상적인 이야기와 식탁 교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균형 잡힌 소그룹은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그 중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나누었던 교제의 예를 살펴보면 무엇이 소그룹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두어 번 그 교회를 방문했다. 교회 개척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이유로 감사를 하고 있다.

서로를 한결같이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한결같이 기억해주기 때문이다(1:3). NIV성경을 제외한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와 비슷한 번역을 제시한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기억하며 자신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운 것에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그들이 복음에 계속 헌신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점은 바울의 두 번째 감사의 이유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

1:4-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심히 기뻐하며 감사기도를 드린다. 여기서 '참여'(partnership)

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제'(fellowship)라고 번역되는 단어이다. 요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퇴색돼서 이웃에게 집에 와서 차나 한잔하라고 권하거나, 예배 후 차와 다과를 나누며 좀 더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제는 신자들

중요성과 우선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속에서 계속 돼야 한다

신약성경에는 겉으로 그럴싸하게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의 예가 많다 (요2:24; 막4:16-17). 그들은 생명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문제들을 나누다 보면 결국 이런 주제들이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노인이 든 사람, 화이



## 모든 영역에 복음 최우선·십자가의 올바른 이해 바탕 긍휼, 신실, 확신, 종말론적 신앙관련 지도자 본받도록 행함 포기 말며 일곱 가지 덕 추구

과의 따뜻한 우정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후 1세기 무렵, 이 단어는 상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교제, 즉 동업(partnership)을 시작한 것이다. 1세기 관점에서 진정한 교제의 핵심은 공유한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교제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복음이라는 비전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교회 형제자매들이 회심한 순간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의 징후를 보여 줌으로써 시작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 안에서 "작한 일"을 시작하셨고 "작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에는 바로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초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소그룹에서 낯서, 스포츠,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이야기 혹은 살면서 겪는 고통과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트칼라와 블루칼라, 인종, 소득, 교육 수준, 성격 등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무엇이 교회와 소그룹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이다. 따라서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을 나누기
-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 순종과 성숙한 제자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
-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눠지기
-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에게 베푸는 자기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시편 64편

시편 64편 3-4절을 보면 '사람의 말이 마음에 화살같이 쏘인다. 독한 말로 겨누어서 마음에 사망의 말을 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아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쉬고,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이나 하고,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깔려 있는 말, 사고방식, 사망의 소리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내 심령에서 솟아나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창6장). 그는 120년 후에 올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믿고 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것이 곧 말씀하신 아버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어진 각자의 생활에서 나라는 존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존재인 것 같을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전하면서 살고, 아버지를 높이면서 살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10, 12, 18, 21, 25, 31)고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많이 맡기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좋은 기회입니다.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인의 즐거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나의 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 사랑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생명 쪽으로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감사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유인데,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미운 것과 독한 것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의 생각이 죄의 종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서 생각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10절에 말씀하신 것같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것이 생각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 청년들이여 다 모여라!

ROCHESTER'11 WWW.GKYM FEST.ORG

## 세계 청년 선교 축제

GLOBAL KOREAN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DEC 27-30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 ▶ 주관/주최 : GAP USA(Global Assistance Partners)
- ▶ 날 짜 : 12월 27일(화) ~ 30일(금)
- ▶ 장 소 :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 ▶ 대 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 ▶ 등록비 : 12월 15일까지 \$250  
목회자 (사모) \$100, 3박 4일 숙박포함

- ▶ 등록문의 : GKYM USA  
T. 551-486-0100 (USA)  
T. 647-828-0515 (CANADA)  
e-mail: roc11info@gkymfest.org  
\*온라인 등록 www.gkymfest.org

Dr. Jerry Rankin  
President of IMB

Jonathan Bonk 목사  
Director of OMSC

김영길 총장  
한동대학교

Loren Cunningham 목사  
Co-founder of YWAM

소향 가수  
CCM 찬양사역자

Dr. Steve Douglass  
President of CCC

이희돈 박사  
WTCA 부총재

Alvin Reid 교수  
Southeastern Baptist 신학대학

# 목회칼럼

##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를 조심하세요

신전지라는 이단 단체에서 전해 준 CD, 신문, 전단지 등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오늘

날 교회가 참 많이 부패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명예욕과 금권선거로 타락을

거듭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모욕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행 9:4),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교회라면, 교회를 정죄하고 파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교회가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롬14:4).

우리는 지폐가 찢고 더럽혀지고 찢어졌다고 해서 지폐를 버리고 위조지폐를 택하지는 않습니다. 위조지폐는 아무리 모양이 깨끗하고 뽀뽀해도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이 찢고 더럽혀져도,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교회가 아닌 단체를 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이단 단체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을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의 찢은 것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단

단체는 여러분이 외롭거나 힘들 때 찾아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들추어내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비리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그들이 성경공부 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옳은데, 적용에서 항상 틀려집니다. 그들은 성경을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데 사용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확신에 차 있고 교묘하여서 일반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실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

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늦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하지도 하는 이들의 유혹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에 혹시라도 신전지에서 파견되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교회에 실망하셨나요?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심시오.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 푸/른/초/장

##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OC 교협회장)



서론: 재앙의 창가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련과 고통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의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선영에 아버님을 묻었는데 묘지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동네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네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례식장에서 왜 우는 곡소리가 아니고 노래 소리가 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고 막상주들에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들 중에 몇 분은 그저 우는 체를 했고 좀 고집이 있는 분은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런 광경을 본적이 있습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감사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1. 믿음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 없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크리스천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시지 결코 우리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시련은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삶에도 흥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

람들에게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이지 만사형통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없다"입니다. 무성치 못하고 없고 없으면 없을 지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업을 총망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가 어려우면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되는 것

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한 흉년 완전한 침체입니다.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7:14)

2.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날에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있을 동안 함께 하는 것 아니고 건강할 때만 함께 하고 잘 나갈 때 함께 하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

음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현실을 극복합니다. 믿음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려도 아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심지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한 마디로 잘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

람3:19).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는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찬송하시고 더 기쁘게 예배하시고 더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시고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성숙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팔을 뻗어야 합니다. 그러노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은 어느새 다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오히려 정금같이 축복해주시실 것입니다.

3. 믿음의 고난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는 길이 됩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 “곤고한 날의 감사”

## 하박국 3장 17-19절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려움의 계절을 잘 살아가야 하나?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려움의 계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 the Giver 이다.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함을 경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는 분 the Taker 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취하는 자의 생활을 하게 한다. 변화되기 전의 야곱이 경험했던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된다.

John Avanzinis는 그의 저서 "In Rich God Poor God"에서 여호와 아래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넘치게 주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보여 주신다. 이 여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들도 어렵고, 회사들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다. 잘살던 나라들이 휘청거린다.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교회들도 역시 어렵다.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앞에서 몇 달째 계속되는 데모나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지는 금융과 앞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데모는 빈부의 격차에 대한 항의이다. 불과 1%의 사람들이 부를 좌지우지하는 부조리에 대한 항의이다. 우리들의 경험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온 세계가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UN 에서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인구의 90%는 1년 가계 수입이 평균 31,244달러인데 비해 상위권 10%는 164,647달러나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상위권의 1%는 무려 연평균 110만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미국인의 종교성을 빈부의 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은 경제적 불평등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끄럽다. 미국은 다른 서방 세계의 나라들보다 더욱 불평등 사회이다. 미국은 136개국에서 39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이다. 이 숫자는 우간다, 자메이카, 카메룬과 비슷하다. 말라카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평등한 나라이다. 다른 서방



## 부유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자의 관계를 보고했다. 최신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교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잘살게 되어지면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회로 바뀌어져 간다.

하버드 대학의 Pippa Norris와 미시건대의 Ronald Inglehart의 공저 "Sacred and Secular"에서 물질적 불안정과 종교성의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사람들은 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 더 종교적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은 더 종교적이고, 부유한 나라들은 더 세속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개발되어지는 나라에서의 종교성은 살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더욱 약해진다. 중국과 베트남이 현대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교회도 다른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라들 캐나다는 101위, 유럽은 111위, 스웨덴이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평등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사회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불평등 사회에서의 부유한 사람들도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는 자신의 향상된 위치를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부자들 역시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담은 노블담대의 David Campbell과 하버드대의 Robert Putnam의 공저인 "American Grace"에서 종교는 교육과 부유함과 별 관계가 없음을 보고했다. 그들은 미국인의 수입과 교회 출석과 관계가 없음을 지적한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고졸자들보다 교회 출석율이 더 높다. 지난 30년간 빈부의 차는 더 증가되었는데 미국의 고졸자들의 교회 출석율은 감소된 반면에 대학 졸업자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항상 바르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종교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

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주신 분이시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부요함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부유하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시23:1)라고 고백한다. 양은 목자가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은 여호와이레를 믿는 성도들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나누어주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넘치게 약속하신 풍성하심의 성취를 누리는 생활을 산다. 우리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주는 생활, 나누는 생활, 씨를 뿌리는 생활, 신실한 청지기 생활을 살면서 풍성하게 경험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기에도 또한 가난한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증상은 가난이 만연할 것이라 하셨다. 가뭄, 기근, 지진, 질병, 자연적 재해 등 모두 가난과 관계되어진다. 또한 신앙 때문에 오

코 아니다. 역설적으로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보이라는 뜻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두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항상 테스트 하신다는 의미는 아닐까?

비록 우리가 상위권 1% 수입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라도 미국이나 한국의 가난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절대 부유함이다. 진정한 축복은 상대적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평보다는 감사의 생활이다. 나눔의 생활이다. 여호와이레의 축복을 주신 부유한 자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도 복의 근원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여호와 이레의 부유한자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아닐까?

연말을 맞이하여 풍성한 감사, 큰 소리의 감사, 긴 감사, 성전에 이어지는 감사를 통해 큰 나눔, 적은 나눔의 생활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소원한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다윗이 회개한 유명한 시편 51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51:1-2) 여기에서 죄과와 죄악과 죄에 대한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텐데 알고 싶습니다.

**A:**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회개한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과 시는 인간의 죄를 3가지 단어 즉 죄과, 죄악,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와 영어는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패사(Transgression), 아온(Iniquity), 하타(Sin)이다.

먼저 죄과(Transgression)라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과는 침해하다 침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 의로 어기고 반항하는 마음과 행동의 죄를 죄과라 합니다. 이런 죄를 시19편에서는 고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죄과는 고의적인 죄,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고의적으로 범하고 어긴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 성을 타고 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이를 침범하고 어기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죄과는 로마서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 죄과-고범죄, 죄악-비똥어짐, 죄-이탈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1:21-23).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반항하여 대적하는 것이 죄과입니다.

둘째, 죄악(Iniquity)은 온전한 것을 구부러뜨리다(Make it crooked), 뒤집다(Perverted)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뻘뻘어지고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천개구리처럼 거꾸로 가야 속이 시원한 변태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죄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악독, 즉 악하고 독한 마음이 들어있기에 자식을 키워도 똑바로 자라는 애들이 없습니다.

셋째, 죄(Sin)는 원어적인 의미로 "과녁을 빗나가다" "미달이 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하타"의 개념으로 보면 길을 잘못 들다, 코스에서 이탈이 되다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가야할 길과 인생의 코스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죄과, 죄악, 죄"란 세 단어는 죄라는 한 단어로 집약되기도 하는데 죄는 인간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모든 인간의 본질이며 현주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병의 상태를 알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구원론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죄 즉 "인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으며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www.rptse.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리를 통하여 복음적 목적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뚜렷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경서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권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부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신앙고백서
- 명함판 사진(2"X2")2매
-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처: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원서접수마감: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8시
- 입학시험: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 영성훈련: 2012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오후 8시
- 문의처: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필리핀의 마노보(MANOBO)



마노보족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들 중 하나이다. 그들의 기원은 동남아시아의 주변 섬들로부터 건너온 초기 말레이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그들의 공통된 문화 언어와 말레이 유산이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노보족 군에는 8개의 집단이 포함

되는데, 코타바토(COTABATO) 마노보, 아구산(AGUSAN) 마노보, 디바바원(DIBAWON) 마노보, 마티그 살루그(MATIG SALLIG) 마노보, 사랑가니(SARANGANI) 마노보, 서부 부키드논(WESTERN BUKIDNON)의 마노보, 오보(OBO) 마노보, 타가바와(TAGABAWA) 마노보가 있다. 그들의 인구는 대략 15,000명 미만에서 50,000명 이상까지 이르는데 주로 정치적 경계나 지형에 따른 명칭에 맞춰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키드논(BUKIDNON)족은 같은 이름의 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구산(AGUSAN)강 계곡 근처에서 사는 아구산족은 그들의 거주 지역 명칭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8개의 마노보 부족들은 대개는 모두가 매우 비슷하게 다만 서로 다른 방언들을 사용하며 떨어져 살게 됨으로 문화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 삶의 모습

마노보족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은 농경생활이나 경작방법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부키드논(BUKIDNON)족은 주요 작물로서 옥수수(MAIZE)와 쌀을 재배하는데 몇몇 농부들은 구채화된 기계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농부들은 아직도 화전 방법을 사용한다. 코타바토(COTABATO)족은 카인긴(KAINGIN)이라는 경작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경작지를 이곳저곳 옮겨다닐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는 땅을 묵혀두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많은 땅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이다. 마노보족의 사회생활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이어서 남자들이 가

장이 된다. 일부다처제가 흔하며, 남자의 부유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부키드논족의 경우는 대부분 일부 일처제이며 권력을 가진 "다투"(DATU)나 족장의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가 된다. 정치구조는 모두 상당히 비슷하다. 술탄(SULTAN)이라는 통치자가 부족장이 되고 그 아래 왕족과 비(非)왕족계급들이 있다. 왕족계급에 속한 사람들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비(非)왕족계급의 사람들은 왕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상하의존적이다. 정치적인 측면은 종종 사회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결혼식과 같은 많은 사회적 행사들은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결혼 중매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마다 신랑과 신부 양측은 지역다투(족장)를 통해 매듭짓는다.

8개 마노보 부족들 간의 인구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족들 다수가 변화하는 세계와 부대끼고 있으며 외부세력의 압박은 그들 각자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 신앙

마노보족의 종교신앙은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개념을 따라 발전했다. 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 영들은 인간처럼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성품들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화를 내거나 즐거워하기도 한다고 믿는다.

마노보족의 종교양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들을 함께 연결하는 공통된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문화는 유일한 "위대한 영"의 존재를 믿는데 이 "위대한 영"은 대개는 창조주로서 여겨진다. 마노보 종족들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부족들의 종교 신앙이 그들에게 다소 영향을 끼쳤다. 마노보족은 자신들의 종교양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

기보다는 오히려 이 새로운 관행들을 자신들의 신앙체계에 통합시켰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농사기술의 훈련은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노보족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화영역에 대한 것들이다. 이 부족들은 많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므로, 소수족의 문화들은 주변의 큰 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영적으로 마노보족은 구주(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자 바라시는 사랑이 풍성하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창조주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그들에게 말 해주겠는가?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수정교회 로버트 솔러 수녀 "가족이 교회 망쳤다"

수정교회 창립자 로버트 H. 솔러 목사의 손녀인 앤지 솔러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정교회 파산 배경을 밝혔다. 교회 내 반목과 불화가 화근이 된, 이번 수정교회 파산에 대해 쓴 글은 솔러 직계 가족 중 유일하게 수정교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화제가 되고 있다.



2008년 자신의 아버지인 로버트 A. 솔러가 수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났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앤지 솔러는 "아버지는 수정교회가 파산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변화를 시도하려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형제(솔러 목사 가족) 사역자들의 월급을 줄이고, 사역자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등 개혁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솔러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로버트 A. 솔러)를 해고시켰고, 교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길 원했다.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며 "그들은 내 아버지(로버트 A. 솔러)에게 '당신의 설교는 기쁨 부으심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었다"고 토로하며 현재 형제간의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음을 시사했다.

당시 아버지이자 교회 창립자인 로버트 H. 솔러 목사도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도됐던 로버트 A. 솔러 목사는 아버지의 프로그램인 '능력의 시간'에 출연을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로버트 A. 솔러 목사가 "더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극복,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가족간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돼 창립자인 로버트 H. 솔러 목사 역시 올해 교회 감독국에서 쫓겨났다는 구설에 올라 곤혹을 치렀다.

수정교회 파산 당시에는 윌라 솔러 콜맨 목사(로버트 H. 솔러 목사 둘째딸)가 담임 목회를 맡고 그의

남편이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앤지 솔러는 "말기 질병을 앓던 가족이 세상을 떠난 기쁨이다. 슬프지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진다"면서도 "에서처럼, 장자권은 팔렸다. 수정교회의 음악은 그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예배당을 쓸 수 있지만, 가톨릭교회로서 수정교회 수정교회 사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 PCUSA 떠나는 교회들 "동성애자 성직 임명 때문"

지난 주말 또다른 교회들이 미국장로교(PCUSA)로부터 탈퇴 행렬에 합류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워싱턴DC에서 섬니교회(Summer Presbyterian Church) 외에도 채플힐교회(Chapel Hill Presbyterian Church), 퍼스트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의 총 3개 교회가 PCUSA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들 교회들은 올해 PCUSA가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성직 임명을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반대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섬니교회의 경우에는 90% 가량의 교인들이 탈퇴에 찬성했다. 이들은 복음주의연합교회(ECC)에 새롭게 가입할 전망이다.

PCUSA 내에서는 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이래로 많은 보수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왔으며 실제로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들의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도돼 왔다. 아직까지 탈퇴한 교회나 교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PCUSA 총회측은 크리스천포스트에 밝혔다.

한편 탈퇴한 교회들은 섬니교회의 경우처럼 보수적 교단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탈퇴 교회들이 모여 구성한 네트워크인 장로교인회(Fellowship of Presbyterians)의 경우처럼 대안적 장로교 조직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교단 내에 남아 있으면서도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 역시 있다. 네트워크 안에는 이러한 이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장로교인회측은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 '예수 그리스도' 음란단어 취급

파키스탄 정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의 사용을 금지한 단어 목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Jesus Christ'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음란성 단어나 속어, 욕설 등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쓰였을 경우 이를 차단시키도록 통신업체들에 지시, 20일부터(현지 시간) 모든 통신업체들이 이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차단 대상으로 지정한 총 1,600여 개의 단어 목록에는 'Jesus Christ'가 성행위를 비유하는 'quackie', 동성애자를 뜻하는 'fairy' 등 사이에 올라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이같은 자유에는 이슬람의 영광을 위한 온당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통신업체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내 인권단체인 바이트 포 올(Byte for All)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국민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검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지금은 문자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은 모든 정보로의 접근 자유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음란단어 목록에 'Jesus Christ'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비난하며, "정부는 많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벌써 실수로든 고의적으로든 무슬림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는 통제불가 수준이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80만 명 돌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지난 9월

말 현재 80만9천 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 이는 고려링크가 설립된 200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가입자 수로, 지난해 3분기까지와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북한 휴대전화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투자한 북한의 휴대전화업체 고려링크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오라스콤이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적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라스콤 텔레콤의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방글라데시나 알제리,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가입자 수와 비교할 때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오라스콤이 올해 3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을 살펴보면 북한의 실적은 하위권이었다. 이 기간 고려링크의 수익은 4천150만 달러로 1억 달러가 넘는 방글라데시나 5억 달러에 가까운 알제리보다 훨씬 낮았다.

낮은 수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 경기개발연구원의 손광주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에 투자한 태국의 이동통신사 록솔리의 경우처럼 오라스콤도 북한에서 이윤 창출은커녕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가입자의 휴대전화 사용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분기 북한 가입자의 일인당 한 달 평균 통화시간은 300분으로 알제리(286분)나 방글라데시(214분), 파키스탄(197분)보다 많았다. 또 '가입자 일인당 월평균 매출액(ARPU)'지수에서도 북한 가입자의 전화 이용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링크는 북한 내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현재 평양을 비롯한 14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소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의 14% 그리고 전 인구의 94%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라스콤은 조만간 평양과 일부 대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 2012년 달력·다이어리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될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다이어리**  
맞춤제작  
최저가격 보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감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사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상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예수 믿을 후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미중동부지사 확대! 특별행일

엘라성구사 대하드수정김대삼 ELHAD CRI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밝기는 일반 LED보다 10배 이상 밝고, 20년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백사, 졸업가운, 성가대 인금위원, 드레스, 정장양복

최저가격 보장  
5-7인치 크로스 크리스탈 펜던트 조명  
LED Design 크로스 조명(100W)  
대형예수교상(100W)  
자랑스럽고 쉽게 선물  
이동식 조명(100W)  
LED 조명(100W)  
LED 조명(100W)  
LED 조명(100W)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조일구 목사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 쉐마의 기독교 교육(3) (신명기 6장 4-9절)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가정교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첫째는 부모들의 “무지함”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은 내가 최고 잘 안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기는 될 안다는 말씀입니까?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심리,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 부모들은 고작해야 1년에 평균 0.7권의 책을 독서하는 무지함을 자랑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는, 부모들의 “무례함”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모들은 참 멋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항상 말다툼은 당연지사처럼 행동합니다. 또 그런 부모인 까닭에 심지어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에게 무안을 주면서 심지어는 따귀까지 때리는 무례한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

의 무례함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자녀교육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을 것들

첫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 6:4-9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늘

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수 천년동안 학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모가 성경과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도 없었으니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지금도 다음 4가지 가정교육을 실시합니다.

외우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 그들을 아침 기도회 때마다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테리트’라는 긴 옷을 걸쳐 입게 하고 그 위에 ‘지지트’라는 푸른 천을 늘어뜨리는 장식의 옷을 걸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 줍니다.

셋째, ‘테피린’이라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한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하나는 머리에 가죽 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붙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가죽 상자 안에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쉐마’가 쓰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 문간에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에다 보관합니다. 이것은 ‘메주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 ‘메주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성경말씀과 기도문을 외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 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 시리로드...” 라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을 맞추게 교육합니다. 유대인이려면 누구나 이렇게 철저한 가정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정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정체성(Identity)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세대에게는 꼭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주내 한인교회와 차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정체성(Identity)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째로 의하면 우리 한인교회를 떠나가는 차세대들의 7-80%가 이 정체성의 혼돈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겨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감리교의 선각자 한 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적당하게 “50% 한국인, 50% 미국인”으로 키우지 말고 확실한

것을 먹어야 해요?” 그렇게 물으면 부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노예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1년에 한번 씩은 꼭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쓴나물과 맛있는 빵을 참고 먹으면서 자신을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문명화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에어콘 속에서 살아도 초막절만 되면 나가서 마당에 집을 짓고 종려나무로 지붕을 엮고 태양빛 아래서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을 지낸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고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 이렇게 지냈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학교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이 가장 중심입니다.

1) 자녀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핫 벤틀포’라는 ‘성경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단다” 또 그렇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기만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은 이 꿀보다 더 달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 또 중학교에 가게 되면 ‘벳 탈 무드’라는 ‘성령의 집’에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탈무드와 미시간을 배웁니다.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3) 더 자라서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벳 핫 미드라쉬’라고 하는 ‘연구의 집’에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연구를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별하고 스스로 실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학교에서 오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만을 공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학과 공부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 공부의 절대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틀림없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재들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브리대학은 세계 10대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가장 일류대학인 서울대가 세계 100대 대학 안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또 자신들보다 40배나 되는 아랍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와 같은 힘, 그 자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기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통해 정체성 교육 철저히 학교교육도 신앙교육 우선,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

“100% 한국인, 100% 미국인”으로 키울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철저한 100%의 미국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류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역할을 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의식과 신앙으로 100% 한국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것을 철저히 실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꼭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맛있는 빵도 꼭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

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고 논어와 맹자와 사서삼경을 외웠던 것처럼 성경을 외웁니다. 잘 외우면 랍비나 정찬을 합니다. 그리고 상을 하나 주는데 그것은 꿀로 바른 과자입니다.

요즘은 단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꿀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꿀로 과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과자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달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2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2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2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회부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 학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2년 5월 17일(수) ~ 21일(일)
- 2) 고시 장소: Sheraton Meadows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 고시: (1)교회사 (2)조약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성경학 (이상 4과목)
- 2) 제술 고시: (1)구약학 (2)신약학 (3)논어 (4)성경본고 (이상 4과목)
- (1) 구약 주제 - 창세기 3:1-21
- (2) 신약 주제 - 베드로후서 3:8-13
- (3) 논어 주제 - VerChips에 관하여 개회부의 성경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 (4) 성경 본고 - 1. 구약: 요엘2:28-32
- 2. 신약: 사도행전1:1-12
- 3. 두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성경본고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4. 필기 고시 당일 아침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본고(1교사)를 지을 것.
- (5) 제술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제 및 논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서 7자이제에 제출할 것.
- 1. Letter Size (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 줄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행간은 120%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어과 주제는 각각 2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성경본고는 30분 분량의 영고.
- 4. 논어과 주제는 논어작성 원하여 제출 것이며 영문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2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총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증 기재해야 함) 1부
- 6) 당회장 추천서 2장
- 7) 고시료: \$10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술고시 과목본고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012년 5월 31일 자 무효로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월의 총회(7월 22일-24일) 중에 합격자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료는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에게 송금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인쇄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열지 못하게 할 것. 화면에 화면을 바꾸면 자동 정지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술 과목 영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Rev. Hae Chul) / Email: haeichol@gmail.com  
3280 Monte Rd, Lansdale, Pa, 19446 / Cell: 267-471-7777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이정현 목사 (310)749-0577 (iaicopc0316@yahoo.co.kr)
- 2)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267)471-7777 (haeichol@g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자영 목사 (646)735-4905 (pastorjames@jubileepc.org)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2.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viction in the doctrine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1(Mon), 2012.
- 2) Place: Sheraton Meadows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st - Genesis 3:1-21
- (2) NT Exegesis Test - 2 Peter 3:8-13
-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VerChips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① OT: Joel 2:28-32 ② NT: Acts 2:1-12
- \* Choose one of the two tests above.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Lin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aeichol@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eChul\_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0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2. (Package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 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s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appear on-site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Choi (267)471-7777, haeichol@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ay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inter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be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Hae Chul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haeichol@gmail.com  
3280 Monte Rd, Lansdale, PA, 19446 / Cell: 267-471-7777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ung Hyun Lee (310)749-0577 (iaicopc0316@yahoo.co.kr)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Hae Chul (267)471-7777 (haeichol@gmail.com)
- 3) Inquiries in English: Rev. James Kim (646)735-4905 (pastorjames@jubileepc.org)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66.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코페르니쿠스의 한계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태양중심설, heliocentricism)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옳았는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옳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의 설명이 100% 옳지는 않았지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하지 '지구가 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찰과 이성(이성)은 어디까지 믿음만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볼만 하다.

코페르니쿠스의 등장으로 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꼭 코페르니쿠스 때문은 아니지만 이성적인 과학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거나 과학과 성경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지식인들의 주장 덕분에(?)이다. 성경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관점은 분명히 지구 중심이어서 성경이 천동설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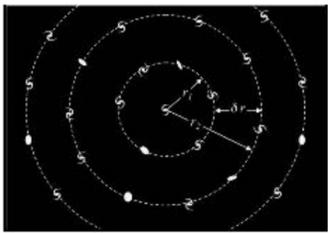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완전히 지구 중심 이야기다. 지구가 모든 창조물 중에 맨 처음이다. 그리고 그 지구가 6일 동안 꾸며지고 있는 것이 창조과정이다. 심지어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크다는 태양과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도 지구를 위해 지어졌다. 그러므로 타락한 중세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상황에서 천동설이 무너질 때 성경이 유독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더욱이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 마치 과학(지동설)과 성경이 상충되어 벌어진 재판이라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재판은 교황청과 진본이 깊은 갈릴레오를 대항하려는 과학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 과학자들은 당시의 세상 과학 즉 천동설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갈릴레오의 이론이 성경을 배척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황청을 압박한 것이 한 이유였다(또 다른 이유는 갈릴레오의 저서 "두 개의 세계관에 대한 대화"에서 교황을 암시하는 인물을 통해 교황을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동설과 상충한다는 성경 구절들(예호수아 10:13, 시편 19:1-5, 이사야 40:22)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천동설을 지지하

는 내용이 아니다. 원래 천동설은 그리스인들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여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완성을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교회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이론의 오류에 대한 비난을 성경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천동설이 사실이 아니라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지구중심주의(geocentricism)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가?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지구중심주의의 관점을 버리고 이성(과학)의 관점을

## 코페르니쿠스 발견 비판 없이 받아들여 지구중심주의 성경도 버려 은하들이 지구중심으로 양파껍질처럼 백만광년마다 겹겹이 배치돼



**Neo-geocentricism**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100만 광년마다 은하들이 배열 되어 존재하고 있다.

가지게 되었다. 불안정한 코페르니쿠스의 이성(과학)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새로운 우주관은 어떤 특정한 장소도 없고 중심도 없으며 은하들이 균일하게 존재한다는 빅뱅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양자화 된 은하(quantized galaxy)들은 빅뱅의 가정인 균일한 우주와 특별한 장소가 없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빅뱅 가정에 의하면 은하들이 무질서하게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찰된 은하들은 일정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그 일정한 장소란 관찰자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다. 은하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마치 양파껍질처럼 약 백만 광년마다 겹겹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중심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곳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만약 관찰자를 지구에서 우주의 한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면 양파껍질 모양의 배열은 없어지고 만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는 말이다!

이 지구중심적인 우주의 모양에 대해 과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지금 은하계들의 적색편이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다"(W. G. Tifft and W. J. Cocke, Global redshift quantization, Astrophysical Journal, 1984).

"은하중심주의 틀에는 적색편이 배열이 강하게 양자화(불연속)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W. Napier and B. Guthrie, Quantized redshifts: astatous report, Journal Astrophysics and Astronomy, 1997).

2004년에 과학과 종교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템플턴 상(Templeton Prize)을 받은 천문학자 엘리스 박사는 우주의 모양이 빅뱅의 주장과는 달리 대칭적 구형인데 우주론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대칭적 구 모양의 우주모형을 세울 수 있다. 실제 관측에 의해서 결코 이 모델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 오직 철학적 동기만 그 모델을 배제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과학적 관점으로는 이 모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는 철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우주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칼텍의 이론물리학 교수였던 파인만(Richard Feynman, 1918-1988) 박사는 빅뱅 우주론과 배치되는 관찰 결과들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에 대해 과학계가 과잉반응을 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토로 하였다.

"나는 균일성 가정(빅뱅)은 지구중심적 사고 체계(천동설)가 무너지는 일련

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그저 보통의 평범한 은하계에 속한, 한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한 평범한 행성에 살고 있다고 말해 놓고 만약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당혹스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균일성 가설(빅뱅)에 더욱 매달리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 창조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천문학자들이 관찰한 은하 적색편이의 양자화 된 배열은 코페르니쿠스 원리와 이 원리에 기초를 둔 모든 천문학(빅뱅을 포함하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Russell Humphreys, Ph.D. Physics, Starlight and Time, 1994, p.128).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코페르니쿠스(과학)의 발견을 비판 없이 과잉으로 받아들인 많은 크리스천들은 애석하게도 지구중심주의인 성경도 버리고 말았다.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란 사실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45:18).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시고 그 곳에 사람을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증장교교회)

## 변질된 양심의 회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9).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인간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판단의 잣대이던 진리 사고체계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세상을 재는 허상이 잦아진 거짓 사고체계가 마음의 사고방식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거짓을 진리로 상상해 받아들이고 그대로 감정, 의지가 반응을 하고 마음 판에 기억되었습니다. 자신의 발거벗음이 수치로 보여지고 죄의식이 마음 판에 코팅되었습니다. 모든 생각의 흐름이나 감정의 의지도 상상력에 따라오는 행동들도 수치심과 죄의식의 검은 색으로 모두 코팅되었습니다. 양심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나님 성품을 바로 따라가도록 도덕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선한 양심위에 자신의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지키고 방어하는 목적변경으로 악한 양심이 덧입혀졌습니다. 선한 양심은 악한 양심에게 둘러싸여 그 목소리를 낸다 해도 보통은 사나운 악한 양심에게 먹히웁니다.

악한 양심은 자신의 것에 위협을 느끼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낄수록 칼날과 같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자신의 범을 요구하기에 관찰이 되지 않으면 분노로 대응하고 과격한 판결을 내려 파괴하고 응징하고 살인도 일말의 가책 없이 합리화하여 불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모습에서 부추기는 악한 양심에 휘둘러 동생을 죽이고도 가책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만을 챙기는 극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하는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강할수록 조금만 원하는 것이 좌절되어도 거절감에 복수극으로 응징해야하는 마귀식 단순구조의 악한 양심은 올인 해 소진하기까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내게 죄있는 자를 응징하는 정당방위의 이름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원수를 갚는 의식구조입니다.

악한 양심이 맹렬히 일을 하는 무대는 자기중심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자기 의가 잣대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 언제나 억울한 희생자의 입장에 섭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용서하려해도 화가 잔뜩 난 마음이 짝짝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고 또 읽으며 "오호라 곤근한 자라" 통회하고 정죄하고 달려 봐도 한 번 복이 오면 악한 양심은 오히려 극도의 처단 쪽으로 외골수 일방통행으로 파괴하고 몰고 갑니다. 절대로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모든 폭력을 동원해 응징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열등감이 강할수록 예민해진 거절감이 온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듯 상상을 키워 악한 양심을 갈고 닦은 터인자라 과대망상증, 편지증, 사이코패스 등등을 포함해 정신병의 수준에까지 자신의 인강성을 깎아 먹습니다.

자신을 몰아 세워 페인이 될 지경까지 되어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받아 주십니다. 어떤 현편이든 절대 몰아 세우시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파산한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맨발로 뛰어나와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이를 악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드러마되하게 하나님을 만나 진리에 눈이 뜨고 개종한 바울로 바꾸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며 일생을 헌신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이 절대 옳다고 여기는 악한 양심의 활동은 저주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악한 양심의 목소리를 물리나게 하고 선한 양심을 불러 일으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기막힌 모습을 보도록 해주십니다. 악한 양심이 할 말을 잃고 조용해지니 용서받은 마음이 겸손히 입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임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b>갑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월-토) Tel: (702) 379-7979, Fax: (702) 379-8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11:00 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2819 McKee Rd., Chandler, NC 2802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목회 기도회: 오후 7:00 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2819 McKee Rd., Chandler, NC 28020	<b>풍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910) 227-8291, Fax: (910) 227-7777 3290 Morris Rd., Levittown, PA 15046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평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평구)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445-4919, Fax: (410) 445-4036 1600 Rockwood Rd., Levittown, PA 15047	<b>맨 앨 교회</b>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445-4919, Fax: (410) 445-4036 3700 St. Johns Lane, Edgewater,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617) 552-4477, Fax: (617) 552-4477 750 Main St., Hingham, MA 01948	
<b>볼티모어 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4 1005 Broadway Ave., Baltimore, MD 21202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04) 455-0191, Fax: (204) 455-0191 5007 Peachey Ave., Winnipeg, MB R5B 5S8 Lethbridge, AB T1C 2K2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06) 527-0381, Fax: (206) 527-1749 4640 N.E. 160th St., Seattle, WA 98125 www.kjpcw.org	<b>입간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301) 820-8049, Fax: (301) 820-8179 850 Rony Rd., Gaithersburg, MD 20878 www.kjms.com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07) 544-6446, Fax: (207) 544-3152 2220 Green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평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14) 357-1496, Fax: (214) 357-1496 2416 Wilshire Ave., Houston, TX 7704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714) 542-0266, Fax: (714) 542-0267 750 Wilshire Ave., Houston, TX 77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81) 424-6766, Fax: (281) 424-6237 408 E. 7th St., Dallas, TX 75247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703) 341-4427, Fax: (703) 341-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	<b>주 예수 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13) 644-4444, Fax: (813) 644-4444 10201 Robbins Rd., Richmond, VA 23228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201-0318, Fax: (410) 201-0318 220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52) 385-1949, Fax: (252) 385-1949 7401 S. Verbe St., Thomas, NC 28610	<b>타코마 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333-2207, Fax: (253) 333-2207 8702 E. 8th St., Thomas, NC 286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333-2207, Fax: (253) 333-2207 8424 E. 8th St., Thomas, NC 28644	
<b>템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480) 725-0191, Fax: (480) 725-0191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	<b>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603) 842-4731, Fax: (603) 842-462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26-9011, Fax: (808) 726-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b>아가페신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26-9011, Fax: (808) 726-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b>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장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39-7004, Cell: (808) 219-4982 3023 8th Ave., Honolulu, HI 96816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277-2386, Fax: (808) 277-2322 1161 E. Banaeale St., Honolulu, HI 96814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847-4252, Fax: (808) 847-4167 www.honolulu.org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수호측 ‘북미총회’ 명칭사용은 불법”

## 여의도순복음교회 □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주장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와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지일갑 목사는)는 지난 10월 25일 출범한 순복음 북미총회수호(이하 수호, 총회장 이자용 목사)에 대해 북미총회 명칭사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는 선교국 산하 지역총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북미총회는 수호총회가 표방한 여의도교회의 자매교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수호총회는 여의도의 자매교단이 될 수 없다며, 이유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순복음세계선교회 산하 총회들의 총회장은 모두 총재목사가 임명하는 것이고 수호총회는 자체적으로 선출을 했으므로 자매교단이 아닌 여의도와는 상관없는 독립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가든스위 호텔에서 열렸던 순복음북미총회(수호)는 불법총회라고 밝혔다. 또한 수호측에서 언급한 수호측 목회자들을 북미총회에서 제명시킨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제명시킨 것이 아닌 총회를 벗어나 새로운 총회 활동을 한 것이므로 자동제명된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수호측은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수호측을 자매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는 순복음북미총회(수호)를 불법총회로 규정했으나 수호측에서는 창립총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지난 10월 25일 가든스위 호텔에서 열린 순복음북미총회(수호) 창립장기총회 모습)

뜻대로 독립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북미총회 명칭사용이 불법이라 운운한 것은 미국의 법에 대해 무지해서 나온 표현”이라 밝혔다.

수호측은 “미국에서 명칭은 한 단어만 달라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순복음 북미총회(수호) 명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호총회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미총회의 불법성 때문”이라 밝혔다.

북미총회 정관에는 총회장은 총재가 임명하지만 부총회장은 총회참석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헌법 24조 2항 부총회장: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총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이다. 그

러나 지난 3월 달라스 총회에서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모두 조용기 목사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은 이영훈 목사이며 북미총회 헌법에



울타리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찬양으로 감사예배에서 CTS채임버 앙상블이 연주하고 있다

## 토, 주일 예배 □ 매 아침 도넛 나누기 울타리선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욱 목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나주욱 대표 표는 “1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울타리선교회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해 축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하워드킴 목사(사우스배이장로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본 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스탠리차 이사의 인사말, CTS America 어린이합창단, 바리톤 황효진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최상진 목사(평화나눔공동체 대표)가 ‘홀리스 예수’(눅15:11-3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의거해 북미총회 총재 역시 이영훈 목사이야 하며, 따라서 달라스총회에서 총회장 임명은 이영훈 목사가 해야 하는데 조용기 목사가 했다고 말하고 이는 명백히 총회헌법을 어긴 처사라고 반박했다.

수호측은 순복음북미총회(수호)가 출범하게 된 것은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이 조 목사의 성령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총회라고 설명했다. 즉 북미총회의 헌법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총재(헌법 4장 23조 1항: 총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이기에 북미총회 총재는 조용기 목사가 될 수 없지만 수호총회 총재는 조용기 목사(헌법 23조 1항은 조용기 목사를 당연직 총재로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호측에서는 순복음선교회측과 북미총회측과는 어떠한 법적인 부딪힘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순복음북미총회수호가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을 계승하는 정통총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의의나무선교회는 LA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 2천여 노숙자에게 음식제공 의의나무 선교회 LA다운타운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불경 기여파로 얼어붙은 미주지역에 훈함을 안겨준 행사가 열렸다.

의의나무교회(담임 이준 목사)와 큰빛감리교회(담임 조현영 목사), 예수사랑선교회(대표 조병국 목사) 등이 주축이 된 의의나무선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역지(823 Olson St, LA)에서 샌드위치와 불고기덮밥 등을 2천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이준 목사는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말씀을 전하다가 최근 길에서 잠을 자는 분을 돕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교회차원에서 음식 나

누는 일을 해왔다. 음식을 나눠주는 기쁨이 있지만 늦게 도착해 음식을 받지 못한 홈리스들의 허한 마음을 보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 목회자들과 의기투합해 이날 행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홈리스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 노숙자는 “다운타운 내외 같이 음식을 나누는 여러 나라 단체들이 있지만 음식의 퀄리티와 친절함 등을 볼 때 한인커뮤니티의 홈리스 사역이 뛰어나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부모님선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남가주성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넘치는 승리의 삶 살라” 부모님선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

부모님선교회(대표 주도진 목사)는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1월 27일 오후 6시 남가주성서교회(담임 안병준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주도진 목사는 “부모님선교회는 16년간 양로병원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역을 해왔다. 이 사역을 통해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최경복 집사의 찬양 인도와 신중자 목사(부모님선교회 부목사)의 사회로 시작, 김희은 장로가 기도, 홍순래 집사(한미교회 지휘자)가 특송을 했으며 장구대 목사(이스라엘 선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사41:10-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은혜찬양운동선학원 원생들이 찬양을, 사우스배이 부모님선교회 사랑의 찬양단과 동부 부모님선교회 회원들의 특별찬양을 했다. 이날 예배는 이종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임훈철 담임목사 추대 20일 공동의회서 총투표 252 중 213표 얻어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PCA, 총회장 강기봉 목사) 소속인 아르헨티나중앙교회가 지난 20일 공동의회를 실시하고

임훈철 목사(사진)를 담임목사로 추대했다. 청빙위원회 11명이 만장일치로 임목사를 단독후보로 내세웠으며, 이날 열린 투표에서 총투표인수 252명 중 찬성 213표, 반대 38표, 무효 1표로 선임됐다. 임훈철 목사는 3년 계약기간 동안 중앙교회의 담임으로 재직하게 된다. (기사제공: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울타리선교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30분부터 4259 S. Western Ave, LA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매주 주일 정오에는 울타리선교회 SBD(1298 N.D St, San Bernardino, CA)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한 LA 다운타운 6가와 타운이 만나는 길거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30분에 도넛을 나눠주고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지역교회 선교회와 학생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라면과 도넛을 나누어주며 홈리스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박준호 기자)



창대교회 노숙자를 위한 나눔행사 가져

창대교회(담임 이훈준 목사)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 노숙자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샌버나디노 경찰서와 함께 펼친 나눔 사역은 이 지역 노숙자 50명용 초대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정성이 담긴 무료식사와 선물(말한복, 우유, 담요,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을 나누며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교회가 직접 찾아가 사랑을 전했다.

## OKCBMC 새 회장에 이현우 회원 선출 제22회 정기총회, “최선을 다하겠노라!”

오래된 한인기독교선교회(OKCBMC 회장 이국지)는 11월 26일 오전 7시 CBMC 회관에서 2012년도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이현우 회원을 선출하고 감사로 홍선식 회원을 연임시켰다.

이현우 회장은 NW지역에 세탁업을 운영하는 변엘장로교회 독실한 신자로 이 지역에서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를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하다. 이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짧게 취임 인사말을 대하고 이

임하는 이국지 직전회장에게 지난 2년 동안 연임한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OKCBMC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1991년 5월 창립 후 지금까지 1,043회 기도모임을 가진 미국내 모범 지회이다.

OKCBMC는 언제든지 회원 등록을 받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회관에 오게 되면 자유롭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다.

(기사 제공: OKCBMC)



OKCBMC 제22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현우 회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동부(NY, NJ) 교회안내</b></p>							<p><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권희수 교목목사: 캐미리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월-목) 오전 8:30(금)</p>
<p><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자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뉴욕복안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4:45</p>	<p><b>뉴욕리얼미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해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4:45</p>	<p><b>뉴욕사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p>	<p><b>뉴욕순복음안도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월-목) 새벽기도회: 오전 6:30(금-토)</p>	<p><b>뉴욕 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4:45(월-목)</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목)</p>	<p><b>뉴욕호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박지락 주일예배: 오전 7:15 주일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목)</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목)</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범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봉양일렌드성경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해다니교회</b>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10:30</p>	<p><b>어린양 교회</b>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후 1:30</p>	<p><b>주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홍익 주일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핀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핀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00(월-목)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1:30</p>	<p><b>한미음침교회</b> 담임목사: 박아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목)</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6-0009 Fax: (323)665-0048 N.Y.: Tel. (914)666-4450 Fax: (914)666-0074</p>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p>	<p><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7:00</p>	<p><b>아르헨티나 재민교회</b> 담임목사: 최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이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7:40(월-목) 오, 수, 금, 금요일마다 주일 오전 8:30</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서사: 임한권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수요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1, 2, 3부 새벽기도회)</p>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정기 이사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이사회(이사장 이대연 장로) 정기이사회가 6일(화) 오후 7시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린다. 교협 38회기 예산안 심의와 이사회26회기 사업계획 및 신입이사 환영이 있게 된다.  
▲문의: (718)358-007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12월 11일(주) 저녁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위임 박규성 목사는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2년 전부터 퀸즈장로교회에서 사역해왔다.  
▲문의: (718)886-4040

패밀리터치 뉴욕지부 4주년 감사예배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뉴욕지부 4주년 감사예배가 12월 11일(주) 저녁 6시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4-4477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연말모임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회장 김해중 목사) 연말 모임이 12월 11일(주) 오후 6시 뉴욕 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린다. 강연과 작품낭송, 음악이 함께 하는 열린 문학모임으로 기독교문학에 관심 있는 비회원들도 참석할 수 있다.  
▲문의: (646)404-1611

세계성령운동뉴욕협 신년기도모임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주최하는 송년감사 및 신년위한 기도 모임이 12월 8일(목) 오전 11시 대동연회장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문의: (718)938-1777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이보춘) 회장 이취임식이 12월 12일(월)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2대 신임회장 이보춘 장로와 새 집행부가 취임한다.  
▲문의: (917)641-7552

지휘자 청빙

볼티모어교회(담임 이영섭 목사)가 주일 1부 예배(오전 8시30분)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를 찾고 있다. 자격은 1)세례 받은 자 2)음악 전공자 3)교회 지휘 경험자 4)미국 체류에 지장이 없는 자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이메일(kpcb@verizon.net)로 보내야 한다.  
▲문의: (410)337-9448(교회 사무실)

제 2회 새천년 명사초청

뉴욕새천년교회(담임 홍 목사)가 12월 18일(주) 오후 5시 제 2회 새천년 명사초청 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전경배 집사(믿음으로 사는교회, 뉴욕주 판사).  
▲문의: (718)570-3881

찬양인도전도사 청빙

뉴욕 웨체스터카운티 화잇플레인에 위치한 뉴욕은혜교회가 소명예 충실한 찬양인도 할 전도사를 청빙한다.  
▲문의: (914)260-0071

필그림교회 성탄음악회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음악회가 12월 24일(토) 오후 7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필그림 연합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아를 공연한다.  
▲문의: (201)843-2222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일원의 교회에서는 만찬과 축하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가 지난 24일 혼자 사는 교인들과 유학생, 조선족 동포 등을 초청해 터키 만찬을 가졌다.

뉴욕목사회 제40회기 임원 조직 완료

총무 김희복, 서기 김홍석, 회계 이은수 목사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 제40회기 임원이 조직 완료됐다. 목사회는 지난 25일 인선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승희 목사 △부회장 최예식 목사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김홍석 목사 △부서기 이철희 목사 △회계 이은수 목사 △부회계 전희수 목사 △협동총무 이재덕 목사, 장경혜 목사.

목사회는 오는 12월 13일(화)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제 40회기 취임예배를 드린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지난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플러싱 경로센터(



지난 23일 플러싱경로센터를 찾아 쌀을 전달한 뉴욕목사회 임원들. 왼쪽부터 이재덕 목사, 김승희 회장부부, 최예식 부회장, 김철원 이사장.

이사장 김철원 변호사)를 방문하고 쌀 20포를 전달했다. 김승희 목사는 "목사들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

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며 쌀을 전달하고 함께 자리한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지역 축구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지역 축구대회 1위 프라미스교회  
뉴욕목회자축구단 주최, 2위 등대교회

뉴욕목회자축구단(단장 김홍석 목사)이 개최한 다민족선교를 위한 제 4회 미동부지역 축구대회가 24일 키세나팍 코스모스 축구장에서 결승전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1위는 프라미스교회, 2위는 등대교회, 공동 3위는 뉴욕성결교회 아프가니스탄 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조별리그를 거쳐 뉴욕초대교회, 믿음으로사는교회, 열방침례교회, 메신저교회, 퀸즈중앙교회 등 8개 팀이

8강전에 진출했으며 이번 결승전에서 프라미스교회와 등대교회가 경합, 4대 1로 프라미스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MVP는 프라미스교회 축구팀.

폐회 예배는 준비위원장 김인식 목사의 사회로 김승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대표기도에 이어 설교,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 허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추수감사절 노숙자쉼터서 급식봉사  
워싱턴 경희대동문회  
GCS여성클럽 공동주관

경희대워싱턴동문회(회장 이형숙)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 여성클럽 워싱턴지회(회장 임유순)가 공동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워싱턴DC에 있는 뉴욕 애브뉴 노숙자 쉼터를 찾아 급식봉사를 했다.

약250여 명의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에서 경희대동문들은 야채로 만든 수프를 끓이고 GCS여성클럽 회원들은 치킨과 소고기 볶음을 준비했다.

이형숙 회장은 "경희대동문회는 미국의 경제침체 이후로 사치스런 만찬보다는 검소하고 연말연시를 통해 이웃을 섬겨왔다"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소외된 우리의 타인종들을 돌보는 기회가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임유순 여성클럽회장은 "워싱턴 일원에 1,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이민자들이 더 많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GCS여성클럽은 한국을 포함 아시아 아프리카 빈민후원, 유엔과 함께 하는 세계평화의날 행사, 전세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 등을 후원하고 있다.

경희대동문회는 그간 불우이웃들을 위한 김치 담그기, 노숙자급식, 무료진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을 돕고 있다. 한편, 동문회는 오는 12월 10일(주) 오후 4시에 석굴운동회장 자택(11718 Crippen Court, Great Falls, VA, 22066)에서 동문회 연말모임을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703)757-7635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GCS International>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하는 임유순GCS여성클럽 회장(좌)과 경희대동문들

뉴욕장로교회 김재성 담임목사청빙 부결

뉴욕장로교회(임시 당회장 김영인 목사)가 지난 27일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김재성 목사(한국 국제신학대학원 부총장 서리)에 대한 담임청빙 투표결과 3분의2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12시 3부예배 후 진행된 청빙투표에서는 세례교인 785명이 참석해 찬성은 429표로 3분의2인 521표를 넘지 못했다. 무효표는 4표.

뉴욕장로교회는 지난해 9월 안민성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청빙위원회

를 구성해 올해 5월과 11월 두 차례 담임목사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으나 교인들의 지지를 모두 받지 못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결과발표 후에도 별 동요 없이 지난 5월에 열린 공동의회에 비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로써 뉴욕장로교회는 15개월째인 담임목사 공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40회기 이·취임식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40회기 뉴욕목사회 이, 취임식 감사 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후 6시
- 장 소 :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사무)
- 주 소 :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 전 화 : 718-639-3021

- 회 장: 김승희 목사
- 부회장: 최예식 목사
- 총 무: 김희복 목사
- 협동총무: 이재덕 목사
- 장경혜 목사
- 서 기: 김홍석 목사
- 부서기: 이철희 목사
- 회 계: 이은수 목사
- 부회계: 전희수 목사



# 30여 교회 참여 '연합 메시아 공연'

## 12월 4일 7시30분 새삶교회, 지휘 송규식 목사

남가주 30여개의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오는 4일(월) 오후 7시30분 새삶교회에서 연합 메시아 공연을 갖는다.

지난 9월 남가주목사회(직전회장 박효우 목사, 신임회장 김영대 목사)는 남가주교회들의 80%이상인 100명-150명 이하의 소형교회임을 감안, 소형교회의 성가대원들을 중심으로 연합 메시아 찬양단원을 모집했다. 이 찬양단이 부를 헬렌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한국에서부터 사랑받으며 불러오는 곡으로 대형 교회 성가대에서는 부를 기회가 있지만 작은 교회 성가대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단원을 모집하고 공연을 준비해왔다.

본 메시아 공연지휘를 맡은 송규식 목사는 "오늘날 혼탁한 문화 속에서 갈수록 아름다운 전통적인 기독교문화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요구 되어온 새로



3년전 예루살렘에서 송규식목사 지휘로 연합 찬양단이 메시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은 장르의 교회음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옛 것이라고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감동으로 세월을 이겨왔던 찬양, 그 안에 우리 신앙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메시아 공연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연주회를 위해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후원하

고 Holy Voice Mission(단장 한종철 박사)와 새삶교회(곽경동 목사)가



헤브리티스 장로중창단 초청 성전증축 입당기념 및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찬양의 밤이 복음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복음장로교회 성전증축 입당기념 및 캄보디아 선교 위한 찬양의 밤

복음장로교회(담임 김상덕 목사)는 헤브리티스 장로중창단 초청 성전증축 입당기념 및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찬양의 밤을 '예수 그 이름...'이란 주제로 11월 27일 오후 6시에 개최했다.

김상덕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마련해주셔서 첫 시간을 선교를 위한 행사로 치르게 됐다. 복음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교회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상덕 담임목사의 지도로 시작된 이날 찬양의 밤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 △주님과 동행, 소망, 그리고 소망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등의 주제로 헤브리티스 중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다.

행사를 주관한다.

메시아 연주회에 단원들로 참가한 교회들은 가나안교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오렌지한인교회, 세계비전교회, 나침반교회, 갈보리교회, 말씀의교회, 오렌지한민교회, 해돋는교회, 나성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로렐교회, 디사이플교회, 주님빛교회, 남가주새생명교회, 새삶교회, 은혜한인교회, 사랑의교회, 세계가가페선교회, 주님의총신교회, 동부장로교회, 벳새다한인교회, 광명교회, 온누리교회, 미주벨레교회, 미주제일교회,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회 등 30여개 교회이다.

또한 이날 헤브리티스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메시아코랄이 합창을 맡아 특별한 연주회를 갖게 된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자세한 것은 (714)699-021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서부교회 게시판

## west

### 남가주교회 이취임 감사예배

제42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는 이취임 감사예배를 12월 11일(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에서 개최한다.

▲문의: (323)404-3147/총무 박세현 목사, (213)255-1725/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주사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류창식 목사)는 아주사의 밤을 12월 19일(월) 오후 6시부터 9시40분까지 APU East Campus UTCC Hall(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244-5097/총무 송성주 전도사

### 오레곤밴쿠버한인교회연 제18회 연합성가제

오레곤 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 음악분과위원회(위원장: 박병주 목사)가 주관하는 제18회 연합 성가제가 12월 3일(토) 저녁 7시 오레곤선교회 본당(9100 SW Wilshire St., Portland OR 97225)에서 열린다. 이번 성가제는 벨렐장로교회, 비버튼한인장로교회, 오레곤선교회, 온누리성결교회, 밴쿠버지역 연합성가대, 에덴장로교회 가 출연하며 오레곤장로찬양단, 오레곤밴쿠버 목사회찬양단, 오레곤밴쿠버연합성가대가 찬조출연 한다.

▲문의: (971)322-6967/박병주 목사

### 산호세교회 신천지 이단대책세미나

산호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는 신천지 이단대책 세미나를 12월11일(주일) 오후 5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 소예배당에서 개최한다.

▲ 문의: (408)263-5100

###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 2012년도 정기총회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 2012년도 정기총회가 12월 5일(월) 오후 6시 오레곤 제일교회(담임 양성환 목사 7390 SW Grabhorn, Aloha, OR 97007)에서 개최된다.

▲ 문의: (503)642-9562



## '2011 월드미션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는 '2011 월드미션의 밤'을 11월 22일 저녁 7시 본교 체펠실에서 열었다. 본교재학생 이노웅 전도사와 승기선 사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세계비전교회 권사들의 오토 하프 연주, 본교 선교, 독서, 중보기도 동아리 멤버들의 찬양, 민선호 자매의 클라리넷 연주, 본교 신선목 교수의 자제들의 태권도 시범,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밴드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 4회 정기공연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김영대 목사, 지휘 전중재교수, 반주 헬렌 박) 제 4회 정기공연이 27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공연에 앞서 단장 김영대 목사는 "공연에 앞서 단장 김영대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노래로 마음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찬양하는 행사이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박중재 목사가 개회기도를 드렸다.

이날 공연은 "드러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세" 등 한국 성가로 막을 올렸으며 CCM 모음곡, 외국 성가 등 다양한 음악으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별히 이날 특별 출연한 헤세드남성중창단(세리토스장로교회/지휘 박경철, 반주 김경아)은 '주님의 사랑', '예수, 나의 기쁨' 등을 선사했고, LA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이영재, 반주 이용예)은 '은혜 아니면', '풀밭 속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주었다.

특히 이날 순서에 따라 22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을 실천한 후 정시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2006년 발족돼 정기공연과 함께 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매해 정기 공연을 통해 작은 교회 목회자녀들을 발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소중한사람들 제10회 사랑의 담요나누기 120명의 홈리스들에게 담요제공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은 22일 오전 8시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소중한사람들 사역지에서 제10회 사랑의 담요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는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

제10회 사랑의 담요 나누기 행사가 LA 다운타운에 소중한사람들 사역지에서 열리고 있다

아 120명의 홈리스들에게 한인커뮤니티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120여 소중환사람들 이사회(이사장 최대영 장로)가 이번행사를 위해 특별헌금을 했다.

소중한사람들은 미국의 경제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로 거리로 나와 있는 어려운 환경을 감안 추수감사절부터 신년 초까지 사랑 나눔의 뜻 깊은 행사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소중한 사람들은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자들은 담요 한 장당 10달러의 금액을 소중한사람들로 보내면 된다. 체크에 Precious People로 기재하고 P.O. Box 57479 Los Angeles, CA 9005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323)810-0691, (626)710-6596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m Wray  
 본, 모, 귀, 입에 없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자기기 있으니 편하게!  
 임대료 3.00 a day 39 a wk 공짜!  
 ■ 가격은 인건비인상 50%수용  
 ■ 고급 핸드폰 제공  
 ■ 장기 - 스페셜 할인  
 ■ 미국 어디서든 무료 배달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북화점  
 2717 W Olympic Blvd, 2717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982-6288 Fax: 213-982-1124  
 프랜차이즈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8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자리가 평생 행복을 만끽한다 **아로마센타5층**  
 The(원) 결혼식, 졸업식, 제막식, 각종행사 3880 Wilshire Blvd, 5th Fl., L.A., CA 90010  
 www.theonehall.com 213-387-7575

**Alpha Printing & Design**  
 323.663.2211 4422 Beverly Blvd  
 alpha2211@gmail.com Los Angeles, CA 90004

#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전 세계에는 2천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쳐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케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선교지 케냐에서 문안드립니다.

단비
계속된 가뭄으로 케냐의 많은 곳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시즌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온통 누런 모습이었는데 비가 와서 모든 것이 푸르러지니 오히려 이상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비가 오니 모두가 밭을 갈아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을 심는 모습을 보고 이번 시즌에는 무엇인가 추수할 것이 있을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굶주렸던 사람들과 풀이 없어 뼈째 말라만 가던 소와 양, 염소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샤밤(Al-Shabaab)과의 전쟁
최근 2개월 내 케냐에서 영국인 및 프랑스인 관광객, 그리고 스페인 출신 구조단체인 2명이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인 알 샤밤에 의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는 알 샤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 케냐 군 병력이 소말리아로 진입,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 샤밤 측에서는 케냐 군 병력이 철수하지 않으면 케냐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였고 10월24일 새벽 나이로비 시내 바(bar)에서 수류탄이 폭발하여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경 나이로비 시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또 다시 수류탄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알 샤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가리사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 10여명이 죽고 상당수가 다쳤습니다. 케냐가 안정되어 선교활동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2011년 둘째 학기가 11월 16일 종강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일찍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케냐의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 학교

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탕 값은 두 배 이상 올랐고 다른 물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못하고 강의실에 들어오는가 하면, 저녁을 거른 채 잠자리에 들기도 했고, 옥수수와 소금 간만으로 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비가 너무 밀려 있어서 집으로 보내지는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학비와 음식을 포함해서 \$120이지만 이것조차도 이들에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신학교 주변의 환경이 덥고,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없어 케냐 사람들도 적응하기에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들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이번 학기에는 2과목을 가르쳤습니다. 1학년의 전도와 제자훈련학, 4학년의 비교종교학이었습니다. 특별과정 학기는 12월 5일부터 2주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학년의 조직신학과 2학년의 선교학 개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순방
마싱가 타운쉽교회는 9월 4일 교회당을 완공하려고 건축 헌금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람베”라는 정성으로 서로 돕고 사는 노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헌금으로 지붕까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6일에는 학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Meru(메루) 부족에서 온 3명의 학생들이 있는 “메루”라는 도시의 Kirindine(키린디네)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당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하였고, 11월 13일에는 2학년 학생인 John이 목회하고 있는 Ngetani(게타니)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격려하고 왔으며, 11월 20일에는 3학년 스티브가 목회하고 있는 Uthunthini(우툰티니)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스티브는 다음 학기에 인턴십으로 교회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는 동안 교회가 든든하기를 위해서 12명의 신학생들을 초청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노방전도, 가가호호 전도를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저에게 설교와 성찬식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져 검은 색(Black cotton soil) 흙이 있는 비포장도로 지역은 4륜구동 차(4 wheel drive)를 가지고 고도 힘이 드는데 승용차인 제 차를 가지고는 들어 갈 수 없어 다녀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치원교사 훈련대학, 현



선교지 편

지인 선교사 훈련원 건축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은 9월 학기에 이 예정 선교사가 5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7월말 창문 위까지 마쳤던 건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기에 하는 건축이 너무 힘이 들어 우기철까지 기다렸으나 케냐의 인플레이가 심해 미재이들도 전보다 2배 이상의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많이 오르고 자재 값도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생각했던 예산을 가지고는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 것 같아 빨리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급한데 생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12월 초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어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일군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소식과 기도제목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미혜는 대학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입학원서를 보내고(케냐는 아직도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때로는 며칠씩 연걸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과 그랜트(grant)를 많이 받아야, 아빠가 많이 해줄 수 없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 샤밤과의 전쟁 중에 있는 케냐의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마싱가 신학교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마싱가 신학교 부설유치원, 유치원 교사훈련대학, 선교사 훈련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특별히 지혜와 미혜의 대학진학 문제를 위해

다가오는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이 그리고 신실하신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케냐에서 이사야,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isaiah0814@gmail.com

파라과이

변화되는 한 알의 밀알, 인디언 추장

추장들을 변화시켜 인디언들을 변화시키고자 시작한 ‘인디언 지도자 훈련학교’(EDELIN 에델린)가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피르넬 오비에도 도 시에서 열렸다.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에델린에는 63개 부족을 대표하는 71명의 추장을 비롯하여 총 85명의 인디언들이 참석하였다. 먼 거리를 며칠 동안 걸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를 정도로 지독한 냄새, 쉬지 않고 물어대는 벌레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환경이었지만, 이를 뛰어넘은 현장의 감동과 기쁨을 전한다.

에델린은 추장들이 5일 동안 함께 숙식하며 농업, 양돈, 양계, 양어, 양봉 등의 기술교육과 가족계획, 보건·의료 강의를 듣고 말씀공부와 예배를 통해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추장들에게 성경책, 학교의자, 지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의

이외에도 피르넬 오비에도에 있는 Hospital Regional 병원의 의사들이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한의사의 한방진료도 함께 이루어져 추장들의 건강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인디언들에게 이와 같은 합숙 훈련이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시종일관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다. 꼬깃꼬깃한 종이에 스페인어를 어렵게 적어가며 만들어 온 노래를 최선을 다해 부른 추장, 일주일 동안 변치 않고 부엌에서 아주머니를 도와 허드렛일을 기쁨으로 섬긴 인디언 어린이들의 얼굴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함께 에델린 배지와 증명서를 수여하였다. 에델린 증명서는 에델린 이후의 구호와 협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추장들에게 성경책, 학교의자, 지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의



류, 식량, 의약품, 라디오, 기타, 병아리, 선글라스 등이 선물로 주어졌다. 셔츠와 청바지를 비롯해 대부분이 후원에 의해 마련된 것들이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한 달 가량 앞두고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아 건네진 선물에 추장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에델린 사역 초기, 추장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인디언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직접 만든 공예품과 에델린에서 분양 받아간 병아리로 키운 닭을 선물로 가져와 감사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변화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것을 깨닫는다. 배고픈 아들에게 고기를 직접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속적인 영구적인 선교프로그램으로서의 에델린이 인디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선물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따뜻한 인사 한 번에 마음을 열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디언들이, 12만 명의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꿈꾸어 본다.

양창근 선교사
이메일: ckyang58@hanmail.net

북한선교(NIM)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1년 11월 북한선교 기도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구출의 그 날까지
지난달에 ‘통역의 딸 구출서명운동’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북한선교기도회를 가진 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도 이 일에 서명함으로써 동참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아래에 구출서명에 참여하는 사이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속히 신속자 모녀가 구출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하게도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속자 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모든 메커니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북한 내에 모든 납북자들을 구출하고 모든 억압받는 동포들이 자유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글 http://www.sdjs.or.kr/contact\_petition.php
해외 http://www.sdjs.or.kr/contact\_petition\_eng.php
굶주림, 억압, 고통, 절망·마약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굶주림과 억압으로 고통 받아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과 고통

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윤리와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마약의 급속적인 확산입니다.
마약은 진통작용, 마취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뇌에 대한 직접적 자극으로 뇌손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중독자들은 정신착란, 우울증, 신경쇠약 등으로 폐인이 되어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New York Kom Tang featuring a cow illustration and text abou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Dynamics World featuring an Adidas logo and text about their website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True Friend featuring a heart logo and text about thei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the iPhone app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featuring an image of a smartphone.

Advertisement for Yoo Travel featuring a globe logo and text about their travel services.

Advertisement for Light & Love featuring a person's face and text about their ministry.

Advertisement for True Friend featuring a globe logo and text about thei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featuring a globe logo and text about thei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선교지 소식

(13면 북한선교에서 계속)

북한에서 마약은 김정은의 비자금 조달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이 지시해서 직접 관리 생산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마약재배 및 밀배는 노동당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5호 관리부'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을 위한 총성자금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마약사업이 군부대에서도 자금 마련을 위해 하게 되고, 심지어 일반 주민들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으로서 단속 대상은 '얼음' 또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입니다. 대마초와 아편은 의약품용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 사이에 거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약에 노출된 북한의 주민들은 이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북한 전체로 마약중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북한 관련 소식통을 통해서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 황해도, 평안도 등 북한 전역에 마약이 만연해 있고, 고위층을 위시해서 일반 주민,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마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편재배에 강제동원된 아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먹고서 마약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손님 접대용도 얼음(필로폰)이 나오고, 뇌물과 잔치의 축하선물로까지 얼음이 사용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몇년전부터 '마약 특별수사반'을 조직해서 단속하고 일부는 심각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마약이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비밀리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필로폰을 접해 본 경험이 있고 중독자들까지 여러 명 발견되고 있는 것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마약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한 개인과 그 가정, 국가까지도 뒤흔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기 사욕을 위해 비밀리에 장려한 마약사업으로 북한 전체 주민들을 패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로폰이 잠마당에서 '행복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힘들니까 마약을 먹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 안에서 마약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대책을 제공해주지 않기에 별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쌍한 북한 주민들이 치료를 위해 생존을 위해 접하게 된 마약이 그들의 육체와 정신, 영혼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은 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첫째,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고, 북한 군부대 중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핵배낭 부대가 비밀리에 운용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에 핵을 비롯한 전쟁의 모든 위협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락하시기를 통일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압제와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복음과 양식들이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셋째,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탈북민 사역이 체계화되어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의 일군으로 훈련하는 사역들이 발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미국 내 탈북민들의 신앙과 생활정착을 위한 사역이 잘 시작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150여명이 채 안되지만 점점 인원이 늘고 있으며, 불법체류로 있는 분들도 수백 명이 됩니다.

다섯째, 북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북한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째, 본격적인 북한선교와 통일시대를 위한 일군들과 자원들이 준비되고, 북한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연합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믿음의 등불입니다.

NIM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blessingk@hotmail.com

이집트, 7만기독인 민주주의 정착 기원예배

28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콥트 기독교인 등 이집트 내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에서 활동 중인 이바나바 선교사는 23일 국민일보에 이메일을 통해 "이들 전 군 최고위원회(SCAF)가 시위대에 긴급 대화를 제의했으나 시위대는 다시 '백만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상자가 많아 격양된 분위기에 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이집트 내각이 군부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총선 일정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총리인 에사

사리프 내각은 21일 SCAF에 사퇴서를 냈다. 하지만 SCA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 선교사는 지난 금요일 발생한 백만인 시위는 SCAF와 정부가 작성한 '헌법 개정 원칙'에 이슬람주의자들이 반발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원칙이 군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부에 정권의 조속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콥트 기독교인들 비릇한 이집트 내 콥트주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12시간 동

안 이집트 최대 콥트 예배당인 동굴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회, 찬양집회 등을 갖고 이집트의 평화와 온전한 민주주의의 도래, 총선을 위해 기도했다.

중동전문 기독교 위성방송인 SAT-7 TV에 따르면 콥트 기독교인과 가톨릭교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날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을 개최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철야로 진행된 예배는 7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운집했다.

예배는 각 교파 소속 교회와 찬양팀, 설교자들이 나와 말씀을 전했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사역자들도 참여해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

해 하나가 됐고 가난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았다고 SAT-7 TV는 전했다.

이들은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무슬림 이웃 등 이집트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특히 15분간 한 목소리로 '예수'를 연호하며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구원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아랍레스트리포트에 따르면 콥트 기독교인들 비릇한 소수 민족들은 이번 총선에 기회가 크다. 498석 중 3분의 2가 비례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어서 콥트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진출해 이슬람 근본주의를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선교 '21세기형 새 모델' 만든다

중국선교협의회(KCMA)가 24일 서울 정동 한성중화기독교교회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열어 박성주(중국문선교회) 대표를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회장에 추대하는 등 차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KCMA는 2007년 영국교회의 중국 선교 200주년을 기념해 중국전문 선교단체 및 국제선교단체들로

결성된 뒤 2년마다 '미션 차이나(선교중국)' 컨퍼런스 및 일반 대회를 진행해 왔다. KCMA는 특히 중국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 중인 목회자, 선교사, 학자들과 함께 선교하는 중국교회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변화하는 중국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과 방법을 도출하기 위

해 애써왔다. KCMA는 앞으로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한 뒤 국내외 교회 및 단체들과 연대하는 21세기형 선교운동 모델을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박 신임회장은 "27개 회원단체들이 기독교를 내려놓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세계 선교계와 더불어 새로운 협력모델을 공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콘퍼

런스와 대화를 이원화하는 등 미션 차이나 이벤트를 국제화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원진은 박 회장을 비롯해 총무 다니엘 선교사, 서기 최순환 모리스문서번역회 대표, 회계 이요한 서울중국선교회 대표, 감사 우성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기 겪은 선교사 회복 시스템 마련돼야"

"위기 상황은 끝났어도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위기 디브리핑이 필요하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이시영)이 28일 서울 분동 노량진교회에서 개최한 '위기 디브리핑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이다. '디브리핑(Debriefing)'이란 최근 한국 선교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용어로 일종의 회복 과정이다. 선교사 개인 문제와 선교단체 운영, 각종 위기에 대한 '멤버 케어'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교계는 선교사가 겪는 위기 상황은 설명 종료됐을지 모

르지만 정작 선교사 당사자는 더 큰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주목하고 디브리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진과 쓰나미, 질병과 각종 사고, 내전과 전쟁 등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 등에서는 선교 또는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단어가 됐다. 선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지속적인 선교도 가능하다.

미국 남침례교선교부(IMB) 위기 관리 담당인 짐 라이트(가명) 선교

사는 "선교사와 단체, 교회는 선교사역이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교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복음 확장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기 발생 시 선교사가 떠나야 하는가,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떠나거나(위기탈) 대면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사전 예방 단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위기 발생 시 적합한 대응체계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라이트 선교사는 이를 위해 위기

에 따른 초기 대응자, 위기관리팀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기 대응자는 선교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전화할 사람이다. 위기관리팀은 현지 선교사 리더십과 함께 위기 상황을 처리한다.

IMB 신간회 선교사는 "위기 상황에서의 멤버 케어 목적은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주는 것"이라며 "디브리핑 등 멤버 케어가 부재한 경우 선교사는 수년 간의 신체적·정서적·영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2020년까지 1천 교회 개척

미국에 본부를 둔 두 국제 선교단체가 앞으로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일본에 1천 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SIM(Serving in Mission) 선교회와 Asian Access 선교회는 최근 파트너십을 맺고 이같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Asian Access에 일본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 지

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대지진과 쓰나미 이래로 복음에 개방적인 분위기가 증대됐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국민 전체의 1.5%만이 기독교인이다. 특히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은 일본에서도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지역 가운데 속한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포함해 일본 전역의 목회자들은

최근 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이에 Asian Access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새로운 방식의 사역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두 단체는 각 단체가 단독으로 사역할 때보다 제정과 복음 전파 속도 면에서 유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IM은 1,6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50여 국가에 파송해왔다. 이번 파트너십에서 SIM은 선교사 모집, 훈련과 이를 위한 재정을 담당하게 된다.

Asian Access는 1967년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해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400여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지난 60여년 동안 일본 지역 교회를 설립 많은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했고, 일본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 지원을 비롯해 일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해왔다. Asian Access는 앞으로 SIM과의 파트너십에서 그들의 일본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교사 배치 전략과 선교사 케어를 맡을 예정이다.

A large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서부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라하브라 심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방주선교회, 베델한인교회,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세계비전교회, 세계소망교회, 새창조교회, 샌디에고 영락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일반침례교회, 오렌지카운티장로교회, 요셉선교회, 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ad includes a photo of the pastor, church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탈진과 스트레스 (1)

## 황희숙 박사

(글로벌벤처센터 대표)



[수 회에 걸쳐 연재될 이 칼럼은 황희숙 박사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 Min 학위논문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탈진(脫盡·Burn-out)이란 글자 그대로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그리하여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피로와 무의미를 느끼며 환경과 그 변화에 부적응을 보이는 독특한 심신증후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탈진은 에너지의 고갈 상태이며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탈진된 느낌을 말한다.

'탈진'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탈진을 직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적용한 정신분석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덴버거(Herbert Freudenberger)는 자신을 포함한 치료자들이 정신건강 이동진료소에서 일하는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기 시작하고 마침내 환자들에게 냉정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을 '탈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탈진은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점진적인 과정(process)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알 수 있다.

탈진의 요인에 대해 정신분석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덴버거(Herbert Freudenberger)의 견해를 소개하면 "인정에 대한 요구, 일중독적인 특성, 권위주의, 단호하지 못한 행동들,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들, 빈약한 자아 가치, 그리고 '메시야 콤플렉스' 등"을 포함한다"

탈진의 요인은 성격유형이나 심리 내면적인 이슈들이 탈진 현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대인 관계적 스트레스로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요인들을 "장시간의 업무 시간, 그 업무에 대한 짧은 피드백, 가족과의 시간 부족, 적은 봉급, 인원 부족, 삶의 변화들, 비현실적인 기대들, 휴식 시간의 부족, 시간 관리에 대한 무능력"과

것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각각의 체계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독특하다. 그리고 모든 체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는 전체 체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다. 이러한 케틀과 화이트의 탈진에 대한 설명은 인간 발달에 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상황 안에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본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인간 발달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기초로 하여 인간발달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인 문화 패턴으로부터 오는 기회와 구속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나 역사적 변화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이론을 제시한 학자 중 레윈(Lewin)은 인간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연관된 작용이라고 하였다.

이관적은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인 마이크로 시스템(microsystem), 메소시스템(mesosystem), 엑소시스템(exsosystem), 그리고 보다 큰 문화적, 국가적, 세계적, 환경적 영향 같은 매크로시스템(macrosystem)의 영향과 각 시스템 사이의 생태학적인 상호교류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탈진의 원인을 이해할 때 단선적 인과관계(Linear causation)나 복잡한 인과관계(reciprocal causation)를 벗어나 시스템적인 상호관계적 인과관계(reciprocal causation)의 접근이 탈진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목회상담가 하워드 클라인벨(H. Clinebell)은 탈진의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주장하였는데, 내적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분노와 갈등에 대한 두려움 (2) 자신의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와 현실적인 욕구와 충돌들 사이의 괴롭스러운 갈등 (3) 자기의 직업요구와 가족의 요구와 자신의 자기관리의 필요 등 세 가지이다.

외적인 원인들은 (1) 높은 수준의 갈등과 비판, 그리고 낮은 자기 (2) 조직 안에서 여러 분야를 끼리 끼리 커뮤니케이션 부재 또는 약화 (3) 권위주의적이거나 또는 나약하고 결단성이 없는 지도력 (4) 과장된 기대감, 그 때문에 오는 만성적 피로 (5) 낮은 보수와 지나친 과로에 의한 경제적 착취 (6) 업적에 대한 불공평한 평가와 불공정한 승진, 그리고 잘 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 결여 (7) 성적, 인종적, 노인과 계급적 학대와 차별 (8) 상호 격려나 팀웍의 의식이 없거나 거의 없음 (9)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 결여 (10) 적대적이요 깎아내리는 유머만 있고 진실한 웃음은 결여된 등이다.

탈진의 원인은 (1) 일의 과중 (2)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3) 업무에 대한 제한된 조절 능력 (4)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배제되는 것 (5) 공동체 의식이 없을 때 일어난다. (계속)

## 탈진은 에너지의 고갈 상태...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원인

같은 것으로 상황적이고 환경적이며 체계적이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erifetz와 Bersani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일차적 인과관계 대신에 탈진을 (1) 환경적 (2) 심리적 (3) 대인 관계적 (4) 신체적 (5) 영적인 요인들의 인공두뇌학의 상호 작용으로 보았다.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의 결합은, 그것들 간의 항상성(homeostatic)이 한 쪽으로 쏠렸거나 다른 것에 의해 보상되지 못했을 때 탈진을 초래한다.

이것은 곧, 개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외부적인 요인) 부과된 비현실적인 기대들의 압력을 느낄 때, 그들은 내적인 자기 확인(내부적인 요인)이나 영적인 자원들을 끌어당김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전인적인 인간 이해를 추정하는데 각각의 영역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탈진을 유발하는 것은 그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케틀(Carroll)과 화이트(White)는 탈진은 생태학적인 체계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즉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이 모두가 탈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이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 월 보냄받은 자 (마10:1-4)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세워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란 '내가 보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즉 사도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전시킨 후에 '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은둔하고 세상을 기피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신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름 받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오늘도 세상에 나가십시오.

## 화 거저 주라 (마10:5-10)

8절은 주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전파사역을 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저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거저 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저 준 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다면 그것은 은혜도 사랑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기에 감사할 일도 고마워할 일도 아닙니다. 만일 그 고마움의 대가를 치른다면 그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거저 전하고 거저 베푸는 참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수 중의 생활 (마10:11-15)

11절은 복음사역을 행하려는 제자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즉 어디를 가든 복음전도지를 환대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복음사역자를 도울 사람들을 각처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할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고(왕상17:9), 엘리사의 생활을 도울 수넵 가족

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왕하4:8-10).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모를 협조자들을 적지 않게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직분을 맡는 종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협력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사역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 종들을 홀로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사역할 때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먹이시고 푸시는 주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목 지혜와 순결 (마10:16-33)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6절 후반). 여기서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기응변에 뛰어난 일반적인 동물을 말합니다. 이 뱀처럼 악인들이 득실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순결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뢰하므로 지혜를

지니고 더불어 성결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없이 신앙의 순결만 고집하는 자들은 도피주의자가 될 것이요 또 지혜만 강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경시하는 자는 간교한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의 두 가지 무기를 잘 연마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금 참된 화평 (마10:34-39)

34절의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엡2:2).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과 불의한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이 땅에 던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참된 화평, 곧 내적 화평은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영적투쟁을 통해 얻어집니다. 영적 투쟁을 통해 하늘 평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토 복받은 비결 (마10:40-42)

40-42절은 주님께서 세우고 보내신 사도들의 위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갈라디야교회는 사도 바울이 혐오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그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습니다(갈4:14). 그러면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그들을 환대할 가정에 늘 주의 평

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주기 때문입니다(마10:12,13).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성숙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영혼과 삶에서 역사합니다(살전3:13).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신을 환대하는 자들을 친구로 동역자로 여기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 기도로 국정 운영해갈 대통령이 필요하다

(1면에서 계속)

"순수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존 F. 케네디 대통령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녀노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나라 운명의 한 자락이 자신들의 매일 아침 말씀묵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H. 페프트 대통령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존 타일러 대통령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 나자마자 성경을 녀 장에서 다섯 장 정도 읽는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아침 성경읽기는 지식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매우 귀중하며 무한한 보고(寶庫)이다"-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한편 ABC 방송은 공화당 예비 경선 주자들 중에서도 물론교인인 미트 롬니, 가톨릭인 뉴크 길리치 그리고 보

수주의 신앙을 가진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릭 샌토럼 후보 역시 추수감사절에 밝힌 그들의 연설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략돼 있다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준다.

우리는 미국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국정을 수행한 대통령을 가진 적이 없다. 따라서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미국 전통에 부합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대통령"을 원한다. 바로 '기도하는 삶의 형통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그리워한다. 과연 누가 그러한 인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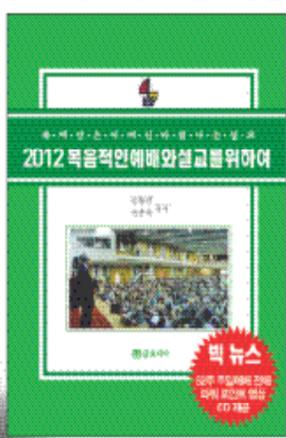
#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 목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향안 목사 저
- 편형 : 4x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향안 목사가 포항연천목교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문헌의 새 방향!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여담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편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령설교 제공
- 주문 수령만큼 책갈피 제공



##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참회, 감동, 소망 결단이 있는 영상비디오 & CD
- 한국교회정보센터 **글로벌로리아**
- www.kcdc.net
- 824-3004, 5004

# 인/터/뷰

## SEED USA 대표 유익상 선교사

# “선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선교회는 교회회를 돕습니다”는 가치 아래 세계 선교에 앞장서 전념하고 있는 SEED선교회(국제대표 이원상 목사)USA가 지난 10월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2011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사역 계획발표와 함께 SEED선교회 15년사 출간을 준비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지역과 구소련 지역에도 SEED선교회를 설립하고 우크라이나, 인도 사역에 힘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2012년초 버지니아, 메릴랜드, LA 등에서 선교학교를 열고 선교 관심자 및 선교사 지망생을 교육하는 한편 선교사훈련원(ICMS) 사역 영역을 넓히고 아시아 및 브라질에도 센터를 구축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익상 선교사 가족

특히 2011 정기이사회를 통해 SEED USA 대표 박신욱 목사가 사임하고 신임 SEED USA 대표로 유익상 선교사를 선임했다. 본지는 유익상 선교사를 만나 앞으로 SEED의 선교 비전과 전략을 알아본다.

두 사람은 동일한 추억의 여행을 각자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멕시코 목사님들의 얼굴, 신학생들의 짓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이 제시한 간단한 명료한 선교의 원리를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적용하려고 하지

리 삶의 좌표가 바뀌게 된 그 충격적인 능력의 경험이 우리 뼈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삶과 교동함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은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경험함으로써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맡은 증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 SEED의 모든 선교사들이 회복해야 할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전락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사역'이란 단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증인으로 소환 된 것입니다. 선교필드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 선교의 주인은 예수님...선교사는 하나님 사역의 증인일 뿐 36개국서 130여 가정이 사역...복음능력 모르는 곳에 가야

-SEED USA 대표가 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선교사로서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는 것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평화요, 자유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사람의 자각에 따라 부르시는 경우보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기회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 봅니다.

1994년 12월 코스타리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는 여섯 살과 한 살배기 두 딸을 데리고 잔뜩 긴장한 엄마 아빠의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두 딸을 텍사스 대학과 대학원에 각각 내려주고 캘리포니아로 달리는 이삿집 트럭의 요란한 엔진소리 뒤에는 그날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두 얼굴이 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은 장난, 빈민촌 사역을 하며 함께 땀 흘리던 동역자의 눈물, 따라우마라 아이들의 천진스런 웃음을 떠올리며 빙글이 웃어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SEED USA 대표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앞으로 4년간 하나님이 불러 주신 일은 SEED USA대표의 소임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라는 가치를 걸고 지난 20여년을 달려온 SEED선교회는 이제 130여 가정이 36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세대일지 모른다는 간절함으로 미전도/미전교 종족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복미의 다민족도 SEED의 제6지역으로 품었습니다. 이제 이 그릇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근대개신교 선교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대명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입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보면 먼저 '내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내증인'이라 하셨으니 주님께 대한 사실만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to-do-list'는 주님의 삶과 사역을 증거하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주님의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곧 선교사로서 우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모든 열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도 가야 하며,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열방 중에 지지치 않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 개인의 영광이나 SEED의 영광이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함께 SEED는 더 겸허하게 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 유익상 선교사는 1994년 12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디모데 목회자 사역개발원을 통한 목회자 훈련 사역 및 따라우마라 교회개척사역을 하고 2011년 10월 SEED USA대표로 선임돼 사역하고 있다.

www.seedtoday.org / (213)389-7221 (이성자 기자)

### 새책 소개

## “축복의 디자인”

Blessing, God's Design for His People

저자 김재성 목사



김재성 목사(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담임)의 강해설교집 “축복의 디자인”(Blessing, God's Design for His People)이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고통을 겪었던 뉴저지 안디옥교회의 담임으로 2년간 사역해온 김 목사의 주일 낮 설교를 모은 것으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설득시키려는 유혹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저자의 고백

### 정직하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

처럼 정직하게 선포한 설교집이다. 김 목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의 힘든 점인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이 된다”고 머리맡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앞드리며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자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책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시119:65-72) 등 114편의 설교가 수록돼 있다. 한 편당 2-3페이지 정도로 요약돼 있어 메시지의 핵심만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저자 김재성 목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리폼드신학교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장위제일교회, 흥릉교회, 서영교회 등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는 미시시피 스타빌한인교회 담임, 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장위제일교회 담임 김기원 목사의 장남이기도 하다.

(유원정 기자)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을-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헬로십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인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열반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수교회, 은혜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n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률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까지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당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민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정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발 인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쉽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준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정물의 ILY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회심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